페퍼스 리베로 문슬기의 '슬기로운 변신'

목포여상 출신 수비 전문
11년 간 실업팀에서 실력 쌓아
금발머리 블루블랙으로 바꿔
라운드별 새 각오로 팀에 활력
고향팀 팬 응원 많이 받아
힘들고 지칠때마다 큰 힘
오늘 GS칼텍스전 기대하세요

AI페퍼스 문슬기가 지난 16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 경기에서 리시브하고 있다. 〈KOVO 제공〉

AI페퍼스 리베로 문슬기(29)가 '변신'했다.

1라운드에서 금발 머리를 질끈 묶고 코트를 누볐던 문슬기는 2라운드에서는 푸른 빛이 감도는 블루블랙 색상으로 염색해 눈길을 끌었다.

"라운드별로 머리 색깔을 바꿀 생각"이라고 말하는 문슬기. 여기에는 매 라운드마다 새로운 각오로 경기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목포 하당초, 목포영화중, 목포여상을 졸업한 문슬기는 광주·전남 '고향 팀' AI페퍼스에서 뛰는 하루하루가 매일 새롭다.

그는 "광주·전남 배구팬들의 응원을 많이 받는다. 늘 고맙고, 지칠 때마다 열심히 하게 되는 큰 힘이 된다"고 고마워했다.

문슬기는 팀 내 유일한 리베로로서 수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레프트 김세인이 '서베로'(원포인트 서버이자 리베로)로서 힘을 보태주고 있지만, 중요한 수비 상황에서는 어김없이 코트에 올라 촘촘한 그물을 펼친다.

페퍼스가 현재까지 치른 전경기(8경기)에 출전해 리시브 효율 26.47%, 디그 성공률 78.65%를 기록했다. 아직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차츰 프로 리그에 적응해가며 서서히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는 민첩한 공격 커버로 전위 선수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공격수들의 볼이 볼로킹에 막혀 우리 코트로 떨어질 때 어김없이 문슬기가 걷어 올린다.

"최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경기하려고 해요. 팀원 모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재밌게 하려고 노력해요. 팀원들이 저를 믿고 편하게 경기할 수 있도록, 든든한 수비의 중심점이 되는 게 목표예요. 또 공격 커버도 더 연마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문슬기는 지난 11년 동안 실업팀에서 실력을 쌓은 리베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양산시청, 포항시체육회, 수원시청 등에서 뛰었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은 수원시청에서 뛰는 문슬기의 활약을 보고 직접 스카우트를 제의했다.

11년 전 '실력이 부족하다'며 스스로 프로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았던 문슬기. 하지만 실업에서 뛰면서 2019년 종합선수권대회 리베로 상, 2021년 한국실업배구연맹전 리베로 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입증했다.

문슬기는 "프로 리그가 확실히 경기력에서 더 '단단'하고, 외국인 용병도 있어서 더 많은 체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즌이 길어서 부상에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그래도 코트 안에서는 똑같다. 차이를 생각하기 보다 어떻게 동료들과 같이 즐길 수 있고, 맞출 수 있는가를 생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실 문슬기는 어깨가 무겁다. 29세로 팀 내 '맏언니'이자 11년 경력 선배인 만큼 후배들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이자 책임감 때문이다.

김 감독도 1라운드에서 "(문)슬기가 실수를 두려워하고, 후배들 눈치를 보는 것 같다. 기량에 비해 위축된 모습이다"며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라운드에서 문슬기는 더 강하고, 단단해졌다. 문슬기는 "처음엔 저 혼자서 힘든 것을 감당하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고집을 부렸다"며 "(이)한비나 (하)혜진이가 옆에서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응원해줘서 자신감이 생겼다. 따뜻한 팀원들 덕분에 편하게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 GS칼텍스와 경기도 기대해 주세요. 팀을 받쳐주는 역할 잘 해서 기대 이상의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할 테니까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응원 보내주시는 팬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한편 AI페퍼스는 19일 오후 7시 서울장충체육관에서 GS칼텍스와 맞붙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KIA 타이거즈 마무리 캠프 … 투수들 "뛰어야 산다"

야수들 수비·작전·타격 훈련
투수들 관중석 계단 뛰기

KIA 타이거즈의 임기영(왼쪽부터), 박진태, 이의리가 챔피언스필드 계단에서 러닝훈련을 하고 있다.

오후가 되면 챔피언스필드에 괴성이 울린다. KIA 타이거즈 투수들의 러닝 훈련이 시작됐다는 신호다.

KIA는 1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1군 선수단의 마무리캠프를 시작했다. 한 시즌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캠프인 만큼 스프링캠프에 비교하면 긴장감은 덜하다.

밝은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캠프가 진행되고 있지만 '계단' 앞에 서면 선수들의 표정이 달라진다.

그라운드에서 야수들의 수비·작전·타격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투수들은 관중석으로 향한다.

두 조로 나눠 한 조는 콘코스와 외야 관중석을 뛴다.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평온하게 러닝 훈련을 하지만 다른 한 조의 분위기는 다르다.

'악'하는 소리와 함께 선수들은 계단을 뛰어오른다.

경사가 가파른 5층 관중석이 훈련 무대가 되기도 하고, 1층 입장 게이트부터 3층 콘코스까지 연결된 계단을 한 번에 뛰어오르기도 한다.

배요한 트레이닝 코치는 "롱런조와 계단조로 나눠 러닝을 하고 있다"며 "계단조의 경우 1·3루 계단을 번갈아 5번씩 뛰어야 한다. 계단 코스도 바꿔가면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레이닝 코치들도 뒤에서 함께 뛰면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다.

1층 계단에서 시작해 3층까지 올라오는 데 채 30초도 걸리지 않지만 빠르고, 강하게 한 번에 뛰어야 하는 만큼 '악' 소리가 절로 나온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은 있다.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사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숨을 고른 뒤 다시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다.

하체 강화를 통해 안정된 밸런스로 강한 공을 뿌리기 위해 투수들은 계단에 땀을 흘리고 있다.

'계단 훈련'에는 또 다른 숨은 뜻도 있다.

선수들은 다양한 장소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 반복 훈련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나름 트레이닝 파트에서 훈련 코스를 고민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째 선수들의 발이 챔피언스필드에 묶였다.

KIA는 2018년까지는 오키나와에서 마무리캠프를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국내에서 3년 연속 마무리캠프가 진행되고 있다. 또 2020년 미국 플로리다 스프링 캠프를 끝으로 광주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훈련 분위기를 바꾸고, 집중력도 높일 수 있는 해외 전지 훈련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코칭스태프의 고민이 커졌다.

이에 익숙한 곳에서의 반복 훈련에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게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훈련을 하면서 효과를 높이고 있다.

5층 관람석에서 그라운드를 내려다보며 캠프 분위기도 내고, 독한 훈련도 진행하고 있는 선수들. KIA의 챔피언스필드 캠프의 새로운 풍경이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충장베이스볼클럽, 2021 광주시장배 중학야구 우승

충장베이스볼클럽(이하 충장BC)이 2021 광주광역시장배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충장BC는 지난 17일 순창팔덕다목적경기장에서 끝난 대회 결승에서 진흥중의 기권패로 3전 전승을 기록,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첫 째날 무등중과의 경기에서 3-1 승리를 거둔 충장BC는 동성고와의 두 번째 경기는 5-4로 끝내면서 연승을 기록했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기권승을 더해 우승팀이 됐다. 최현규가 최우선수의 영예를 안았고, 김성준과 류연우가 각각 우수투수상과 타격상 주인공이 됐다.

동성중 이도훈은 3홈런과 9타점을 만들면서 최다홈런상과 최다타점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한편 18일부터 20일까지 2021년 광주광역시장배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첨단야구장에서 진행된다.

◇대회 시상 내역

▲우승 : 충장중 ▲준우승 : 동성중 ▲최우수선수상 : 최현규(충장중) ▲우수투수상 : 김성준(충장중) ▲타격상 : 류연우(7타수 5안타·타율 0.714·충장중) ▲최다도루상 : 김근화(3개·동성중) ▲최다타점상 : 이도훈(9타점·동성중) ▲최다홈런상 : 이도훈(3개·동성중) ▲감투상 : 조찬희(동성중) ▲미기상 : 박승오(충장중) ▲감독상 : 나길남(충장중 감독) ▲지도상 : 오동원(충장중 야구부장)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 아마 지도자 대상 순회 코치 아카데미 진행

KBO가 아마야구 지도자를 대상으로 순회 코치 아카데미를 연다. 전남북·광주 지역 행사는 25일 진행된다.

이번 순회 코치 아카데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염경엽 KBO 아카데미 디렉터(전 SK 와이번스 감독)와 손혁 전 키움 히어로즈 감독이 참여한다.

염경엽 디렉터는 코칭 리더십, 타격 파트와 수비·주루 파트 교육을 담당하고 손혁 감독은 투수 파트를 맡는다. 또 전문강사가 나서 학교폭력 예방과 부정행위 방지 관련 강의도 한다.

전남북·광주 지역 아카데미는 25일 오전 10시 광주 유탑부티크호텔에서 열리고, 충남북·대전·세종 지역 아카데미는 24일 오전 10시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이뤄진다. 해당 지역 초·중·고 대학 및 리틀야구 지도자는 누구나 아카데미에 참가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2일까지로 전화접수만 가능하다. 관심 있는 아마추어 지도자는 KBO 육성팀(02-3460-4600)에 신청하면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